

# 광주시, 나주·화순·장성·담양 사통팔달 고속도로망 확충

### 광주~고흥 고속도로 용역비 3억원 확보... 남해안 관광 활성화 기대 대통령 공약사업 AI기반 '광주~영암간 초고속도로 건설' 역량 집중

광주시에 인근 자치단체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 고속도로망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고속도로망 조기 확충을 통해 주변 도시와의 교통혼잡을 줄이고,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심과 고속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나주·화순·장성·담양 등 인

근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심 방사형 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통팔달 고속도로망'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첫 사업으로 광주와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연결하는 동남축인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87.7km)을 위한 사전기획조사 용역비로 국비 3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고속도로 건설까지는 국가계획 반영과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나로우주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광주-전남 남해안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인 '광주~영암간 미래형 아우토반 건설 사업' 추진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공약인 서남축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47km)은 속도 무제한인 독일 아우토반을 모티브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다.  
민선 8기 들어 '인공지능 대표 도시'이자 '미래자동차 선도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시는 대통령 임기 내에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신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의 경쟁력까지 갖춘 미래 도시로 급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외곽 제3순환로 일부인 광주~남광산 분기점(9.7km) 구간을 개통하고, 호남고속도로와 진곡산단-하남산단-평동산단 간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미 물류비 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남광산 나들목으로 국지도 49호선까지 연결되면서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접근성도 향상됐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제2순환도로와 연결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의 4차로 확장공사

(11.2km)가 기재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민 숙원 사업인 고속도로 분선 확장과 용봉IC 진입로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이 완성되면 광주 도심 내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는 물론 광주 전역의 교통흐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남인 광주시 도로과장은 "민선 8기 미래발전 핵심의제인 신활력과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도로 기반시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실질적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취약층 月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지원

### 전남도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전남도가 취약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2023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 3가지 사업 가운데 희망저축계좌 I·II 사업으로 2월 1일부터 800여 명을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 I은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매월 10만원 이상 3년간 저축 시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 II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 대상이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3년간 매칭 지원한다.  
이 2가지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희망저축계좌 I은 1440만원 이상, 희망저축계좌 II는 720만원 이상 수령이 예상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올해도 많은 취약계층이 목돈을 마련, 다양한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1차 모집을 시작한다.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시 차상위 이하 가구는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 가구는 월 1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강기정 시장 "미래산업 전환·돌봄 강화"

### 광주시의회 시정연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새해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로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향해 산업·창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돌봄·교육·문화 등 시민행복 실현에 시동을 걸겠다"면서 올해 시정운영 방침을 소개했다.  
강 시장은 올해 창업과 미래산업 전환, 돌봄 등을 강조했다.  
우선 창업 생태계를 위해 현재 조성 중인 7개 펀드 3000억원에 '창업 성장 사다리 펀드'를 더해 5000억원 규모 펀드를 만들고, 삼성 'C-랩 이우사이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창업 기업들에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능형 가전, 스마트 금형, 광융합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양날개를 중심으로 미래산업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 시장은 강조했다.  
구글과 엔비디아 등 세계적 기업과 협력 논의,

10월 완공되는 국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시작할 AI 2단계 사업, AI 영재고 설립, AI 교과서 개발, 미래 자동차 국가 산단 유치 등 과제도 제시했다.  
강 시장은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재미와 활력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생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4월 개시할 시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등 3대 분야 사망자 제로화 운동', 2045 탄소중립 추진 전략 마련을 실행 대책으로 언급했다.  
강 시장은 그동안 교육청이 전담한 교육에서도 지방정부 역할을 다하고 사계절 대표 축제, 역사·인문 자원 활용, e스포츠·점단 영상·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 육성을 스토리가 있는 문화도시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혁신뿐이다"면서 "데이터 행정·융합행정·실증행정으로 행정에도 과감한 혁신의 뿌리를 내리겠다"고 행정 혁신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운암 복합문화체육센터 착공 30일 오후 광주 북구 옛 경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운암 복합문화체육센터 착공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문인 북구청장이 내빈들과 공사 시작을 알리는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시의회 '시민 행복 동반자' 다짐

### 시의회 임시회...정무창 시의회 의장 "의회와 집행부 소통·협력"

지난해 연말 예산 심의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광주시와 시의회가 올해 이른 추가경정예산에 합의한 데 이어 '시민 행복을 위한 동반자'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광주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혁신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본예산 심의 과정은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며 "교훈에 힘입어 원활한 예산편성과 심의를 위한 대안책을 확

립했고,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하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는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이제는 행정에서 '혁신'을 추구하겠다"며 "시의회도 눈에 보이는 변화,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시의회에 당부했다.  
정무창 시의회 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화답했다.  
정 의장은 시정(謝經)에 나오는 '유유낙명'을 언급하며 "사슴은 동물 중에 유일하게 먹이를 발

견하면, 혼자서 먹지 않고 배고픈 동료들과 함께 먹기 위해 운다"며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살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 잘 살기 위한 전제는 사전소통과 양보, 타협"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협치의 기조로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원들은 지역구 민원을 이유로 이른바 '족지 예산'을 요구했고, 광주시는 공약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제시하며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난 27일 전략회의를 열어 민생 안전을 위해 조기 추경에 합의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이방인

문이당

문이당 | 15,000원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